"넷플릭스, K-예능물 거간꾼"…세계시장 도전 계속

'피지컬: 100'·'나는 신이다'로 흥행 발판
"한국처럼 치열하게 예능 만드는곳 없어"

넷플릭스가 한국 예능물 인기를 이어간다. 서바이벌 '피지컬: 100'과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흥행에 힘입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기환 매니저는 4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물 간담회에서 "올해 피지컬: 100이 1위를 차지했다. '예능은 글로벌로 성공하기 힘들다'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피지컬 : 100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사랑 받고 있구나'라고 느꼈다"며 "나는 신이다는 한국에서 처음 제작한 다큐 시리즈다. 제작이 쉽지 않았지만, 맹목적인 믿음에 관해서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면 감사한 일이다. 나는 신이다는 증언자들의 용기 덕분이다. 그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출연자 검증 관련해서는 고민이 적지 않다. 피지컬: 100은 한국 예능을 최초로 세계 넷플릭스 1위에 올랐지만, 출연자의 학교 폭력·폭행·협박과 결승전 조작 의혹으로 얼룩졌다. "넷플릭스에서 출연자 검증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절차를 밟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기록부를 받아 보거나 정신건강의학과와 스트레스 체크를 하기도 했다. 미국 팀에서는 동의를 얻어 SNS를 훑어보기도 했다"며 "출연자에게 질문하고 거짓으로 응답할 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계약도 맺었지만,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이슈가 나와서 안타깝다. 방송 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넷플릭스는 예능 프로그램 7편을 공개한다. 정효민 PD의 '성인+물', 이은경 PD의 '사이렌: 불의섬', 박진경 PD의 '좀비버스', 김재원 PD의 '19/20' '솔로지옥3', 정종연 PD의 '데블스 플랜' 등이다. 성인+물은 MC 신동엽, 성시경이 성과 관련된 해외 인물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쇼다. 청소년 관람불가다. 5월 공개하는 사이렌은 여성 24명이 소방, 경찰, 경호 등 6개 팀을 이뤄 직업과 명예를 걸고 싸우는 서바이벌이다. 좀비버스는 '실제로 좀비가 나타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19/20'은 Z세대의 열아홉 마지막 일주일과 스물의 첫 일주일을 담는다.

특히 성인+물은 넷플릭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미드폼 예능물로 기대를 모은다. 유 매니저는 "성인+물은 러닝타임이 짧아서 제작 기간도 축소됐다. 가벼운 소재라서 편하게 볼 수 있다. 넷플릭스에서 하지 않은 소재"라며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스케일이 큰 것을 했는데, 예능이 꼭 크고 무거운 장르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시청자들에게 밀접하고 빠르게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보통 기획부터 방영까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걸렸는데, 사이렌 제작기간은 약 5개월로 짧은 편이다. 한국 창작자의 퀄리티와 속도가 받쳐줘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효민 PD는 "성인+물은 '인 투디 언노운'(Into the Unknow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본과 대만 총 2편을 준비했는데,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 아무리 여행 가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며 "성시경씨도 '우리나라와 가까운데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 신동엽씨는 '마녀사냥' 때도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본인의 능력을 200% 발휘했다"고 귀띔했다. "예능이 드라마·영화에 비해 세계 시청자와 만날 기회가 조금 늦게 온 것 같다. 더 많은 시청자와 한국적인 콘텐츠를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더 응원하고 도와주면 한국 예능물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 성인+물이 조금 야하고 자극적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웃었다.

박진경 PD와 정종연 PD는 넷플릭스와 첫 협업이다. 박 PD는 "글로벌 마켓을 가봐도 이렇게 치열하게 예능을 만드는 곳이 없다. 우리나라 예능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내가 지금까지 만든 프로그램은 로컬 지향적이었다. '마리텔'도 해외 포맷 수출이 됐지만, 의외로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담겨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는 않더라.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봐도 즐길 수 있을 법하게 만들었는데, 약 200개국에 서비스하다 보니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좀비버스는 '반반 무 많이' 같은 매력이 있다. 치킨집에서 이렇게 주문할 때 '짬짜면'처럼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아니냐. 기존 예능에서 느낀 익숙한 즐거움에 양념을 더했다. '드라마·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맛도 있다"며 "장르적 특성상 CG 등을 위해 충분한 자본·노하우가 필요했다. 이전에는 예능에서 좀비가 나왔을 때 '저게 좀비야?' 였다면, 이번엔 충분히 실감나는 좀비가 만들어졌고 출연자 반응이 리얼하게 나왔다. 예산을 좀 더 쓰고 싶긴 했지만, 덕분에 나의 과한 욕심을 막아줬다"고 덧붙였다.

김 PD는 19/20과 솔로지옥3에 상반된 매력을 담았다. "솔로지옥은 여름에 진행해 핫했는데, 19/20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촬영을 시작해 겨울 감성을 담았다. 솔로지옥은 여름에 찍어서 겨울에 공개하고, 19/20은 겨울에 찍어서 여름에 공개해 계절감이 뚜렷하다"며 "19/20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다. 외국 시청자들은 왜 1월1일에 다 같이 나이를 먹는지 이해를 못해 자막으로 설명했다. 한국적인 문화가 많이 담겼는데, 글로벌에서 이해할까 궁금하다"고 짚었다. "솔로지옥3는 과감하게 여러가지 변화를 줄 것"이라며 "출연자를 모집 중이니 기대해달라"고 청했다.

정 PD는 "예전에 브레인 서바이벌을 했을 때 시즌 끝나고 리뷰 회의하면 스태프들이 '이 프로그램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 당시 김현철 본부장이 '이 프로그램은 어려워야 재미있다'고 해 크게 감명 받았다. 해외에서 공개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해서 그 맛 그대로 준비했다"며 "다들 넷플릭스라는 거간꾼을 통해 해외에 내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느냐. 나 역시 도전하고 싶었지만, 드라마·영화에 비해 기회가 별로 없었다. 예능은 로컬이라는 시선이 많았는데, 조금씩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거간꾼 역할을 해줘서 계속 도전하고 싶다"고 바랐다.

'K팝 솔로 첫 핫100 1위' 지민 "BTS라 가능한 일"

"실감이 잘 안 나고 와닿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K팝 솔로 가수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한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28·박지민)이 팬덤 아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민은 '핫100' 1위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4일 글로벌 팬커뮤니티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같이 작업했던 프로듀서들은 다 막 울고 있고 제작해 주신 분들도 다 연락 주시고 그랬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무엇보다 지민은 "사실 다 방탄소년단이라서 가능한 거고 아미 여러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절대 모르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단체활동을 하는) 방탄소년단을 얼마나 기다려 주고 계신지 더 느낀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핫100' 1위를 차지한 '라이크 크레이지'가 실린 첫 솔로 앨범 '페이스' 작업을 시작할 때 멤버들과 한명 씩 모두 얘기를 했다는 지민은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던 상태였는데 멤버들이 노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됐다"고 고마워했다.

프로듀서인 피독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 상태가 안정됐다는 지민은 "회사 직원 분들, 멤버들, 팬 분들한테 제일 감사하다"면서 "엄청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또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서 되게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또 "아버지도 방금 전화를 주셔서 '자랑스럽다'고 해주셨다며 아버지께 '제가 처음으로 만든 앨범이에요'라면서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내용이 좀 슬프다며 우셨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민은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요. 여러분의 가수인 게 더 자랑스러울 수 있게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위버스 등을 통해 역시 축하를 해줬다. 제이홉은 "지민아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다. 형이 다 눈물이 난다. 고생했어. 너무 축하한다"고, 슈가도 "박지민 빌보드 핫백 1위 가수 너무 멋있고요. 콘서트 게스트 땅땅땅"이라고 적었다. RM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민이 1위를 차지한 '핫100' 게시물을 남기기도 했다.

지민은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핫100'에 여섯 곡을 1위로 올렸다. 그런데 K팝 솔로 가수가 북미 시장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반영하는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차지하며 '핫100' 정상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한을 풀었다.

'도깨비'·'응답' 4K 리마스터링 국내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OTT 콘텐츠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질개선 및 자막제작 등에 40억원을 지원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4일 티빙, 웨이브, 왓챠, 유플러스 모바일 등 국내 OTT 4개사 관계자와 만나 업무 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내 OTT 라이브러리 강화 지원사업'은 국내 OTT의 콘텐츠 보유량을 늘리고, 화질·음향 등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사를 대상으로 4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산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유통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응답하라 시리즈', '도깨비', '시그널' 등 인기작 300편 이상을 고화질(4K)로 업로드하는 등 기존 콘텐츠의 화질·음향을 개선하는 리마스터링 제작을 지원한다. '슈룹', '미스터 션샤인' 등 45편 이상에 청각 장애인 대상 자막을 제공하며, 콘텐츠 64만여편을 소개하는 메타데이터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의 결과물은 원작자에게도 제공한다.

'밤안개' 가수 현미 별세, 향년 85세

작곡가 이봉조와 '세기의 커플'로 유명

'밤안개' 등으로 유명한 원로 가수 현미(김명선)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4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팬클럽 회장이 발견해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난 현미는 1·4 후퇴 당시 피란으로 내려왔다. 미8군 쇼단에서 3인조 여성보컬 그룹 '현시스터즈'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당대 최고 작곡가 손석우(1920~2019)의 눈에 띄어 정식 데뷔를 하게 된다.

손 작곡가는 현미에게 영화 '동경에서 온 사나이' 주제가를 취입하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1962년 독집 데뷔 음반 발매로 이어졌다. 음반 제목은 '당신의 행복을 빌겠어요'였는데, '동경에서 온 사나이'의 주제가 제목이었다.

'당신의 행복을 빌겠어요' 등 손 작곡가의 곡과 당시 떠오르던 작곡가이던 이봉조가 편곡한 '밤안개' 그리고 역시 인기 작곡가 길옥윤의 '내 사랑아' 등이 실렸다.

특히 '밤안개'는 미국 스타 재즈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와 냇 킹 콜 등이 불러 유명한 '잇츠 어 론섬 올드 타운(It's A Lonesome Old Town)의 번안곡이었는데 우리말 가사를 붙여 크게 히트했다. 음반 제목을 '밤안개'로 변경해 재발매되기도 했다.

이후 현미는 이봉조 작곡가와 열애 뒤 결혼했고 '세기의 커플'로 통했다.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애인' '아빠 안녕', '두 사람' 등의 히트곡을 합작하며 세간의 부러움을 샀다.

2007년 자신의 '50주년 기념 콘서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노래하겠다"고 약속했던 현미는 2017년 우리나이로 80세를 기념한 신곡 '내 걱정은 하지마'를 발표하는 등 노익장을 과시했다. 피란 당시 어린 두 동생과 헤어진 아픈 사연이 있는 고인은 2020년엔 이산가족의 고향 체험 VR용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했다.

박성서 대중음악 평론가는 "숱한 명곡을 남긴 현미는 특유의 걸쭉한 허스키 보이스와 거침없는 입담으로 인기를 누렸다"고 기억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빈소와 장례 절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걸그룹 엔믹스, 미니 1집 '빌보드 200'에 첫 진입

JYP엔터테인먼트 4세대 걸그룹 '엔믹스(NMIXX)'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첫 진입했다.

3일(현지시간) 빌보드 트위터 등에 따르면, 엔믹스가 지난달 20일 발매한 미니 1집 '엑스페르고(expérgo)'는 4월8일 자(이하 현지시간) '빌보드 200' 차트 122위에 올랐다.

지난해 다른 대형 4세대 K팝 걸그룹과 함께 데뷔한 엔믹스는 최근 들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엑스페르고' 선공개곡 '영, 덤, 스투피드(Young, Dumb, Stupid)'가 지난달 25일 자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 파워드 바이 트위터'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음반 타이틀곡 '러브미 라이크 디스(Love Me Like This)' 역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 일간 차트에서 순위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MBC M '쇼! 챔피언'에서 첫 음방 1위 트로피를 안았다.